



# 비트컴퓨터(032850)

## 제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클라우드 도입 최대 수혜

NR

- 의료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IT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본격화 될 듯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콘텐츠 등을 인터넷과 연결된 고성능 컴퓨터(데이터센터)에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터넷만 연결만 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 데이터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공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는 제4차 산업혁명 변화의 동인 지능정보기술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접목하기 위한 필수 기반기술로서 온라인의 가상공간에서 공유된 서비스를 저장공간을 통하여 저장하고 연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헬스케어 클라우드는 다양한 환자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를 환자진료에 활용하는 것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바뀌면서 대두되는 대표적인 ICT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다. 미국 의료정보경영학회(HIMS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미국 헬스케어 기관의 83%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병원이 아닌 외부기관에서도 의료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정보 보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원 데이터를 외부 시설에 저장해 관리해 주는 헬스케어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대안 및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규 수요 창출로 동사 성장 가속화 될 듯

동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EMR(전자의무기록), OCS(처방전달)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클레마(CLEM)를 7월에 출시하였다. 기존의 구축형 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병원은 별도의 서버 없이 웹으로 접속해 시스템을 사용한다. 시스템 운영, 관리, 보안 등 별도 인력을 내부에 둘 필요가 없으며, 과금 체계 역시 쓴 만큼 낸다. 데이터 보관 등 클라우드 인프라는 KT가 제공한다.

의료기관이 디지털화 되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데이터의 관리와 더불어 보안 및 비용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사의 클레마(CLEM)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새로운 대안이 되면서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한 헬스케어 클라우드 신규 수요 창출로 동사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주/ 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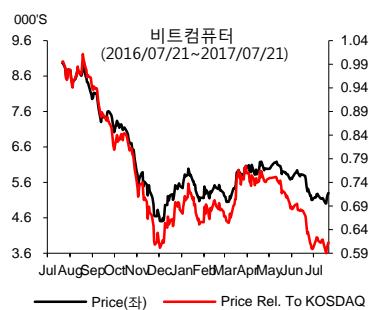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액면가	500원
종가(2017/07/21)	5,280원

### Stock Indicator

자본금	8.3십억원
발행주식수	1,662만주
시가총액	88십억원
외국인지분율	2.9%
배당금(2016)	73원
EPS(2016)	325원
BPS(2016)	2,552원
ROE(2016)	14.0%
52주 주가	4,480~8,950원
60일평균거래량	153,799주
60일평균거래대금	0.9십억원

### Price Trend



FY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자배주주순이익 (억원)	EPS (원)	PER (배)
2012	328	13	5	4	4	21	215.4
2013	354	13	-6	-5	-5	-	-
2014	347	26	16	13	13	79	62.3
2015	373	50	57	46	46	279	27.9
2016	355	51	68	54	54	325	16.9

자료: 비트컴퓨터,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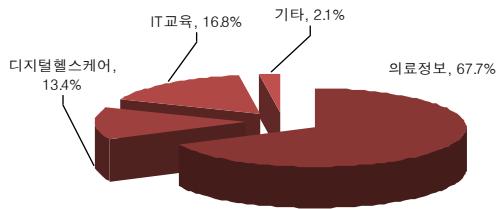
## ■ 의료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IT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

동사는 1983년에 설립된 국내 1호 벤처기업으로서 의료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IT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의료정보사업의 경우 병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EMR(전자 의무기록), OCS(처방전달), PM/PA(원무관리) 등의 솔루션 구축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경우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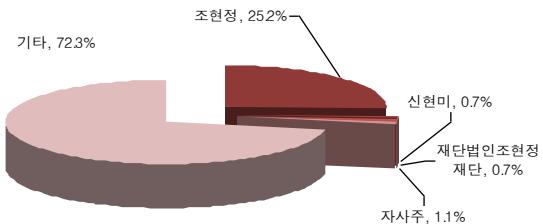
지난해 기준으로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의료정보 67.7%, 디지털 헬스케어 13.4%, IT교육 16.8%, 기타 2.1% 등이다.

한편, 주주는 조현정 25.2%를 비롯하여, 신현미 0.7%, 재단법인조현정재단 0.7%, 자사주 1.1%, 기타 72.3%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림 1> 매출구성(2016년 기준)



<그림 2> 주주분포(2017년 3월 31일 기준)



자료: 비트컴퓨터, 하이투자증권

자료: 비트컴퓨터, 하이투자증권

##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본격화 될 듯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콘텐츠 등을 인터넷과 연결된 고성능 컴퓨터(데이터센터)에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터넷만 연결만 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이 데이터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공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는 제4차 산업혁명 변화의 동인 지능정보기술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접목하기 위한 필수 기반기술로서 온라인의 가상공간에서 공유된 서비스를 저장공간을 통하여 저장하고 연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헬스케어 클라우드는 다양한 환자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를 환자진료에 활용하는 것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바뀌면서 대두되는 대표적인 ICT 융복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다. 미국 의료정보경영학회(HIMS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미국 헬스케어 기관의 83%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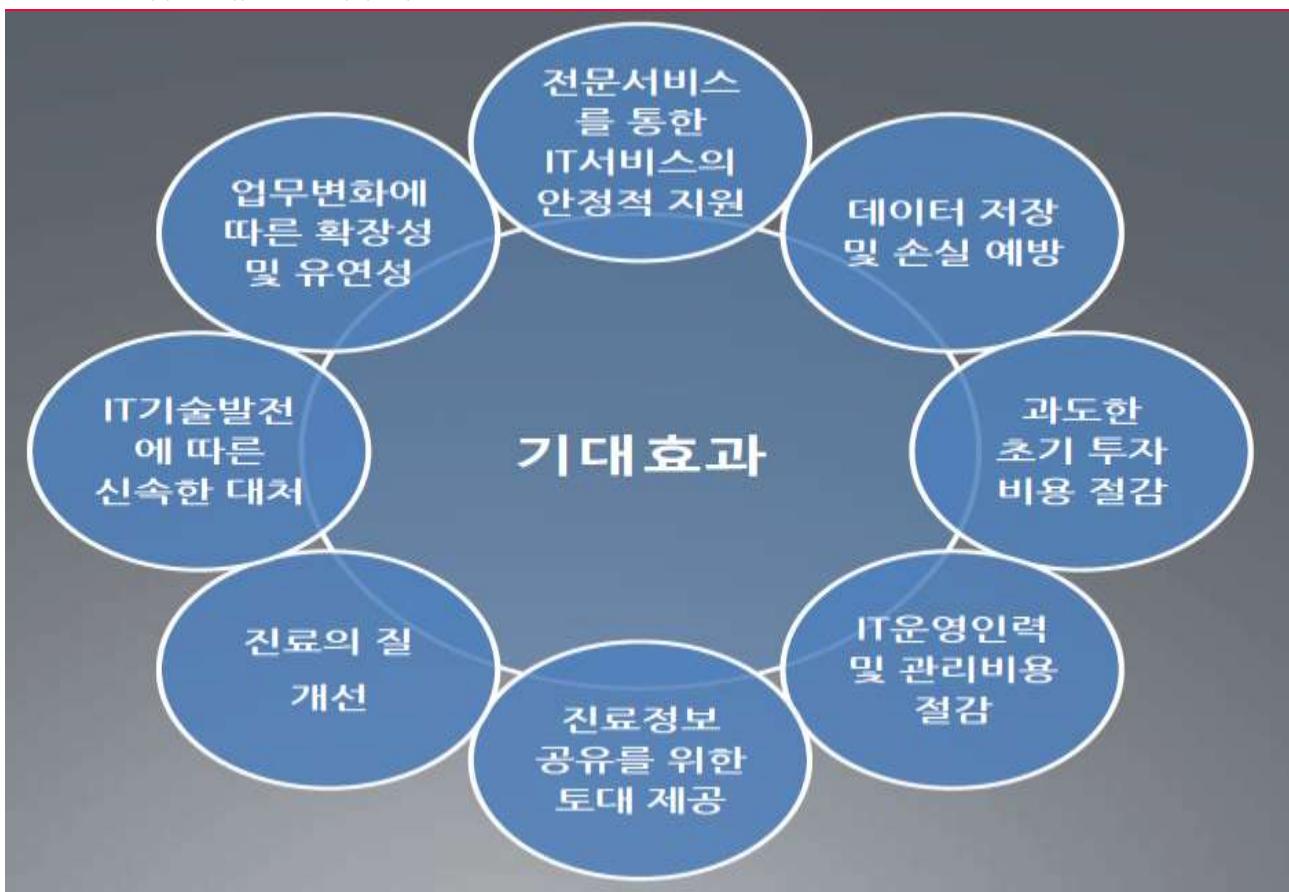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병원이 아닌 외부기관에서도 의료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정보 보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원 데이터를 외부 시설에 저장해 관리해 주는 헬스케어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병원은 환자 정보를 병원 시스템을 구축해 저장해 왔지만 환자 정보 크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되는 비용도 상승하여 이제 더 이상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또한 각종 웨어러블 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병원에서 관리하려면 크기나 보안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들로 인하여 향후 헬스케어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케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IT 인프라 구축과 관리가 가능하므로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과 개원가에서도 PACS, EMR 등 클라우드 사용이 가능해 진다.

결론적으로 병원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인건비도 절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요구사항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 진다. 또한 외부 안전한 데이터센터에 EMR정보 등을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도 강화되고 안전하게 의료정보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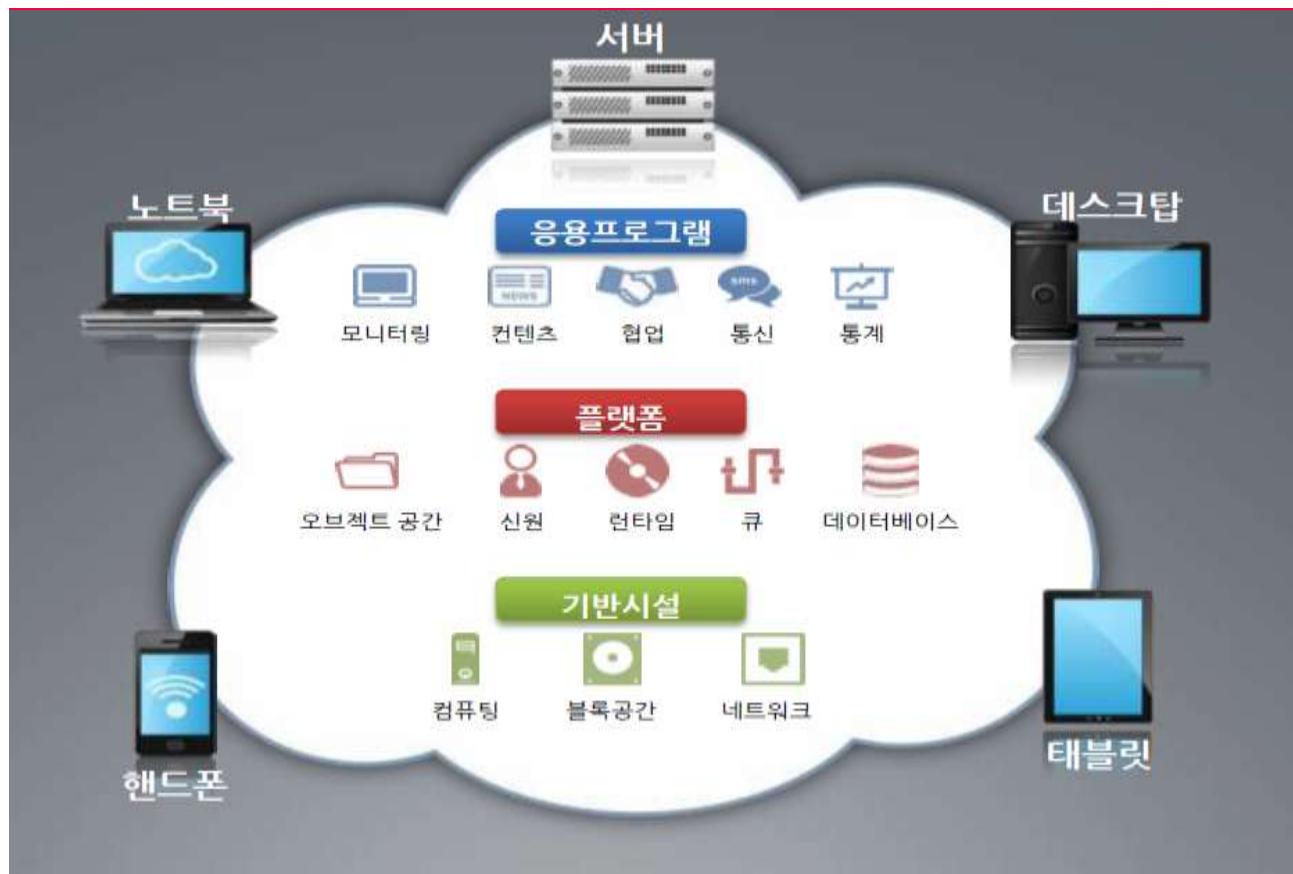
자료: 비트컴퓨터, 하이투자증권

## ■ 새로운 대안 및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규 수요 창출로 동사 성장 가속화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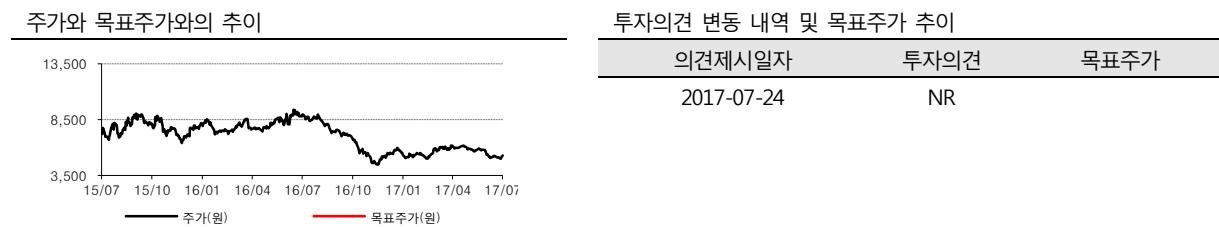
동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EMR(전자의무기록), OCS(처방전달)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클레머(CLEMER)를 7월에 출시하였다. 기존의 구축형 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여, 병원은 별도의 서버 없이 웹으로 접속해 시스템을 사용한다. 시스템 운영, 관리, 보안 등 별도 인력을 내부에 둘 필요가 없으며, 과금 체계 역시 쓴 만큼 낸다. 데이터 보관 등 클라우드 인프라는 KT가 제공한다.

의료기관이 디지털화 되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데이터의 관리와 더불어 보안 및 비용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사의 클레머(CLEMER)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새로운 대안이 되면서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한 헬스케어 클라우드 신규 수요 창출로 동사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클레머(CLEMER)



자료: 비트컴퓨터, 하이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종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